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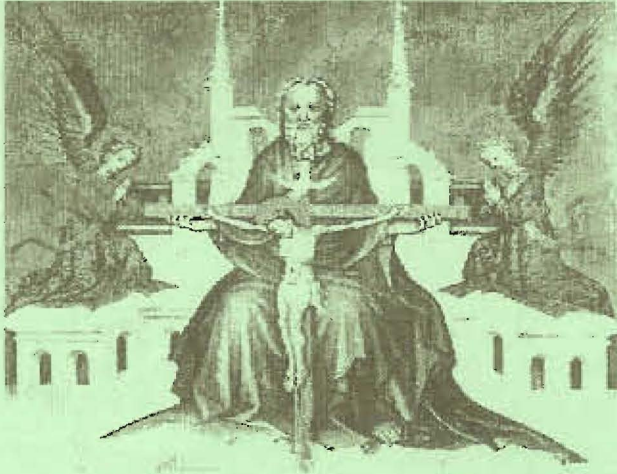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삼위일체 대축일(예수 성심 성월)
제31권 30호(가해) 2011.6.19

[묵상]



삼위일체 <15세기, 템페라, 네셔널 갤러리, 런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구분되어 저희에게 드러내시나
당신이 원하신 것 단 한 가지
외아들을 믿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세상을 심판하시길 원치 않으시고
외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길 원하시니
세상에 외아들을 보내심은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은총.

외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은총과 구원의 삶이니
외아들은 저희의 그리스도 되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성령과의 친교가 이루어지오니
사랑과 은총과 친교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친교가 저희 안에 머물 때
저희의 구원은 이루어지나이다.

-柜-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합체)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합체) : (310)720-824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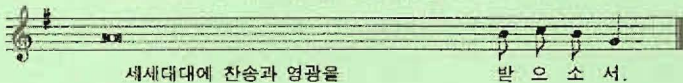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발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박정희 안나
특전미사	(생) 박상준 다미아노 & 정현숙 세레나 가정
주 일	(연) 이덕철 루카, 이숙자 루퍼나, 고준희 제임스, 박송희, 엄익찬 안토니오, 김완태 다미아노, 신태동 요아킴, 임규호 & 임승자, 엄은섭 도로테오, 변세연 대견안드레아, 김시형 시릴로, 박준구 요한, 홍정숙 엘리사벳, 김하서 마리아, 허동수 루수 & 허정자 레지나, 이성범, 홍찬기 대견 안드레아 & 심재순
낮 미사	(생)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이병문 사도 요한,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데레사, 고전용, 차인수 안드레아, 이강웅 요셉, 박씨니 마가렛, 이근모 마리노, 이마테오 & 이마르코, 이종원 베드로 & 아네스 가정, 이종민 요셉, 송호민 & 김나영 가정, 김명재 아가다, 김준호 크리스토퍼, 김준형 마태오, 정승원 샬리 & 트레이시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34,4ㄱ-6.8-9

화답송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세세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커름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제 2독서 코린토 2서(2Corinthians) 13,11-1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요한(John) 3,16-18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4	105	105
봉헌	190	257	257
성체	401	300	287
파견	394	311	311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생명의 성역'인 가정

교육자로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속에는, 고통과 죽음의 참된 의미에 대한 가르침과 모범을 제공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부모들이 자신들 주위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만일 그들이 가족 중의 환자나 노인 구성원들에 대한 친절함과, 도움과 나눔의 태도를 키워주는 데 성공한다면, 그 의무를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93). 가정은, 개인 기도와 가정 기도를 포함한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경축한다. 가정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생명의 선물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빛과 힘을 주시도록 탄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형태의 기도와 예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축행위는 바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현실의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삶이 사랑과 자기 헌신의 삶이라면 말이다.

그러므로 이 경축행위는 생명의 복음에 대한 봉사가 되며, 이 봉사는 가정 안과 주위에서, 보잘것없고 일상적인 매일의 사건들 안에서 드러나는 관심과, 주의와, 사랑에 찬 보살핌의 모습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연대성을 통해 표현된다. 가정들 사이의 연대성을 특히 의미심장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이나 심각한 곤경에 처한 아이들을 기꺼이 입양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이다. 참된 부모의 사랑은, 다른 가정들의 아이들을 받아들이, 그들의 행복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베풀어주기 위해서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입양 중에서도 원격 입양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이를 포기한 이유가 단지 가정이 극도로 가난했기 때문인 경우에 이런 입양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들이 태어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그들을 옮기지 않고도 양육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확고하고 끈기있는 결정"인 연대성 역시 사회적, 정치적 삶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에 대한 가정의 봉사전, 특히 가족 연합회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법과 제도가 잉태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생명의 권리를 결코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94). 노인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문화권들 안에서는 노인이 가족 내에서 중요하고도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다른 문화권들 속에서는 노인이 쓸모없는 짐으로 여겨지며, 버림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락사에 호소하고 싶은 유혹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계속)

“계속 사랑하기”

삼위일체 대축일은 하느님의 축일입니다. 하느님 사랑이 창조적이고, 구원적이며, 성화적(聖化的)이라는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성부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성자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며, 성령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성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무척 사랑하셔서 다른 짐승과는 구별되는 자유의지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갑니다. 결국 자유의 남용으로 인간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려 해도 스스로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을 배반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주시며, 당신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은 자기희생의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 즉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보여 주셨건만, 인간은 두려워서 감히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안에는,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을 등지고 떠났던 기억과, 구세주 예수님까지도 배반한 부끄러움이 어둡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같이 내려오신 성령께서는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인간을 뜨겁게 용서해주시고, 두려움에 갇힌 인간에게 용기를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험차게 걸어

가게 해주십니다.

이렇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인간 역사 안에 함께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이며 단명한지요. 우리의 신뢰는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요. 우리들의 관계는 소모적이고 비창조적이며 얼마나 떠분한지요. 또한 다분히 쾌락 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늘 새롭고, 희생적이며, 순결한 것이 되도록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영화의 끝 장면이 생각납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남편이 자기를 간호하던 젊은 아내에게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부디 내가 죽을 때까지만 나를 사랑해주요.”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이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계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신덕레 테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박희자 마리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김정아 스테파니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공지사항

◆ 주일학교 은총시장에 도네이션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금지원 : 이재정 사도요한, 정충로 안토니오, 김순희 모니카, 김현숙 벨라벳다, 고규재 체칠리아
- 물품지원 해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새학기 주일학교 등록 받습니다.

- 1차접수 : 6월26일까지(첫째 \$100,둘째 \$80, 셋째 \$60)
- 2차접수 : 8월21일~9월11일(등록비 \$20 추가됨)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서머캠프

- 일시 : 6월24~26일(금,토,일), 성당집합시간 : 초/중등부 금요일 오전 9시, 고등부 금요일 오후 2시(개인차편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연락바람)
- 캠프후 성당도착시간 : 26일(주일) 오후 5시 예정
- 장소 : 카추마 레이크(샌타바바라), 텐트에서 숙식
- 준비물 : 주일학교 빨강티셔츠, 슬리퍼, 수영복, 모자, 운동화, 슬리퍼,여벌옷, 재킷, 선블록, Insect Repellent, 타월, 주일헌금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남가주 소식

◆ 교재용 교수, 주일학교 학생대상 첼로 레슨

- 지도교수 : 교재용 베드로(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석박사, 부산 동아대교수, 첼로/바이올린 교재46권 출판)
-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녀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 성격과 신체조건에 따라 악기선택을 권해드립니다.(그룹지도 가능) * 문의 ☎(213)550-6203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단 제5회 정기 연주회 및 성음악 미사

- 일시 : 6월25일(토) 오후 7시
- 장소 : 세인트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LA)
- 1부 : 미사집전(전홍식 요아킴 신부)
- 2부 : 라틴성가 발표 *문의 : ☎(310)634-9631 민원희 안나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개강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위해'

- 주제 : 공관복음서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
- 일시 : 6월24,25,26일(금,토,주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2625 S. Vermont Av. LA)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 수강료 : \$50(1일 \$20) ☎(323)731-4433

◆ 제21차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재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1일(금) 오후 7시~4일(월) 오후 4시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11316 Cypress Av. Riverside, CA 92505)
- 지도신부 : 최석현 마르코 신부
- 참가대상 : 18세~33세 미혼 및 기혼 청년
- 회비 : \$170(6월20일 이후 \$190)
- 문의 : 남가주 성령체신 청년봉사회(KYCR) ☎(213)268-6820 Ame Kim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415-0034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변해경 올리아나 920-5153	김양금 안나 518-3041 6/10(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장수영 패트릭 (213)489-9888 6/18(토) 오후 7시, 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교복 래오 328-1817 6/17(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명렬 라파엘 374-1572 6/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최은경 카타리나 650-3134 6/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1	이명자 마가렛 433-9025	김화수 올리아나 433-9075 6/17(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415-0034	임진희 한나 720-7898 6/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티나 750-4051	오태환 바오로 750-4051 6/1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복희 로사리아 920-4720 6/10(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해경 레나타 808-5005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6/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오영섭 스테파노 748-7323 6/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오석만 사무엘 750-6007 6/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6/10(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영희가보라 프란체스카 544-1009 6/27(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신구임원 합동연수 오후 1시~7시 강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 (요약)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강산에 널리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어 제일 먼저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님께서는 평화의 원천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평화가 세상 곳곳에 널리 펼쳐지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고 동시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쁨과 행복,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는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마침내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현실 - 지키는 평화와 만드는 평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에는 아직도 긴장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급급해 왔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여 자기방어를 위한 명분으로 군비확장에 힘써 왔습니다. 결국 서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도를 넘는 군비경쟁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주어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된다면 남북문제의 해결은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현재 남과 북에 필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려는 소극적인 평화정책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평화정책입니다. 지키는 평화가 아닌 만들어가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과 북은 60년 이상을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왔기에 같은 민족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도 많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는 것으로 착각하며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교류하여야 합니다. 잦은 만남으로 쌓인 오해와 편견을 넘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통해 남과 북은 상생할 수 있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켜

야 할 보편적인 가치는 사랑, 용서, 화해 그리고 평화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현시점에서 더더욱 평화의 사도라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길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치실 즈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7)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이들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하더라도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라(마태 5장 참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2코린 5,14).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며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나눔입니다. 나에게도 필요하고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복음적 의미의 나눔입니다. 나눔은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눔을 통한 사랑은 이웃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 나눔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웃이 휴전선 너머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랑의 나눔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인 제3국에서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쇠는 하느님을 믿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치는 간절한 기도와 용서와 화해의 정신 그리고 사랑의 나눔입니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실천적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주보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도움에 힘입어 이땅에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성자·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치와 사랑과 평화가 형제자매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 운 희 주교